

완도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통해 지역 활력 제고

올해 72억원 투입, 인구 감소 대응 임대 주택 건립·키즈 카페 조성 등 야간 여객선 등 섬 정주여건 개선 빈집 활용 숙소 구축 등 인구 유입

완도군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원을 투입해 지역 활력 증진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

14일 완도군에 따르면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 주택을 건립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복합 문화 공간인 키즈카페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해조류 등을 활용한 블루푸드 창업 기업 지원,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 야간 운행, 해양 치유객 등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활용 치유 숙소 조성 등을 추진해 관광 활성화 및 정주여건 조

성을 동시에 모색할 계획이다.

군은 지금까지 총 462억원을 확보해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만원 상가 조성, 노화 넓도 급수시설 확충, 해양치유 전문 인력 양성, 도서관 건강 돌봄 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완료했다.

노화, 소안, 보길 생활권 통합을 위한 연도교 건설과 농산어촌 미래 희망단지 조성, 의료 취약지 인구 신장실 확충, 마

음치유센터 조성 등의 사업은 진행 중이다.

군은 오는 2026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 특화 및 사업 효과성이 높은 중점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저출생, 청년 인구 유출 현상은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및 지역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지역의 활력

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해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2022년부터 10년간 연 1조원씩 지원하는 재원으로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매년 2500억원, 인구 감소 지역 89개 및 관심 지역 17개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원을 지원한다.

완도=정태영 기자

영암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급여 압류 등 9월까지

영암군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계적 징수 활동에 나섰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방재정 확충, 변화·혁신 자주재원 확보, 조세 형평성 제고 등을 취지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별 정리 기간 영암군은 △관허사업제 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 및 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 징수 수위를 높이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주민의 체납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처분도 시행한다.

영세기업가, 소상공인, 청년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 납세 편의도 제공하는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영암=한교진 기자

박우량 전 신안군수의 감사인사



로컬 25시

홍일갑

신안 주재기자

지난 3월27일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2년)로 군수직을 상실한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선거권은 정지됐으나 선거권(선거운동, 투표 등)은 행사할 수 있어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2015년 헌법소원으로 불합리 결정을 받아 2016년 개정된 형법 43조 2항에 일반 형사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행유예 2년이 경과되면 피선거권도 회복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자는 형법 65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도 실효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최근 박우량 전 군수는 각 읍면을 순회하며 그동안 응원해 준 지지자들과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3월31일 지도읍을 시작으로 15일 압해읍까지 신안군 14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박 전 군수와 석별의 시간을 매듭지었다.

주민들은 각 읍면의 색에 맞춰 옷을 입고 나와 박 전 군수와 석별을 아쉬워했다.

박 전 군수는 “밤낮없이 달려온 지난 15년, 1004섬 신안에 불을 밝히고 싶었다”며 “신안군의 변화와 눈부신 긍정 성과는 신안군청 직원들과 군민들의 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 철학과 가치가 분명한 공무원들이다. 그래서 중간에 자연인으로 돌아왔지만 신안군청 직원들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며 “신안군의 공지와 자부심으로 군정에 적극 협조해 준 군민들이 덕분에 이를 수 있었다”고 감

사의 뜻을 전했다.

햇빛과 바람연금, 해상풍력발전 사업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었다. 1섬 1정원, 버스완전 공영제, 야간운행 여객선 지원 등 섬과 섬, 육지를 잇는 교통 혁신은 지역민과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과감하게 펼쳤다. 굴 양식 6차 산업화 추진 등 신기술 도전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세계적인 작가들이 참여하는 1섬 1뮤지엄 정책, 식문화의 세계화, 섬 역사와 현재의 어울림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창조적인 변화 목표 또한 박 전 군수가 걸어온 길이 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8년 민선 7기 재임 이후 지금까지 전국 자치단체 및 기관에서는 420회 이상 신안군으로 벤치마킹을 다녀갔다.

박 전 군수는 이러한 모든 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모든 군민들이 신안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당당한 생각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죄를 지어 군수직을 박탈당한 자가 자중하지 않고 퇴임식을 빌미로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거센 비난을 하고 있다.

이에 박 전 군수는 “그동안 자신과 함께 고생한 직원들과 지지자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하고 새로운 군수와 함께 멈추지 않는 신안 발전을 부탁하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현재 신안군수 후보군으로 10여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후보가 형성되지 않아 박 전 군수가 부인해도 그의 지지세력을 흡수하기 위한 입지자들의 치열한 물밑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지속 가능한 신안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 모두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한 시기다.



지난 9일 무안군 무안읍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무안읍 철쭉동산에서 봄철 풀매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읍 새마을부녀회, 봄 맞이 풀매기 활동

무안군 무안읍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무안읍 철쭉동산에서 봄철 풀매기 활동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이른 아침부터 부녀회원 30여명이 참여해 무성했던 잡초를 제거

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진행, 철쭉동산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꿨다.

양복순 새마을부녀회장은 “무성하게 자랐던 잡초를 깨끗이 제거해 마음이 뿌듯하다”며 “이번 풀매기를 통해 지역주민들

을 위한 깔끔한 화단을 조성할 수 있어서 보람차다”고 말했다.

김도완 무안읍장은 “깨끗한 환경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새마을부녀회에 감사하다”며 “깨끗한 무안 만들기에 무안읍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형연 기자

해남군, 친환경 농산물 물류비 지원

해남군은 ‘2025년 친환경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 및 법인의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유통

시 차량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해남군 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며 5톤 이상 차량을 통해 광주·전남권을 제외한 소비지로 출하하는 단체, 작목반, 법인이다.

다만 친환경 인증 농산물 중 쌀은 제외되며 개인 신청은 받지 않는다.

5톤 이상 차량 1대당 20만원, 최대 20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유통지원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서류 검토 후 바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강진군, 제28회 전라병영성 축제 개최

18~20일, 전라병영성 일원서 ‘병영성 게임’ 등 프로그램 다채

제28회 전라병영성 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강진군 병영면 전라병영성 일원에서 개최된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전라병영성은 조선 1417년 초대 병마절도사 마천목 장군이 축조한 성으로 대한민국 호국정신의 성지로 손꼽히는 강진의 명소다.

지난 1992년 3월 전남도 기념물 제140호 전라병영성지로 지정됐으며 2011년 7월 강진 전라병영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전라병영성 축제는 국가사적지(제397호) 승격을 기념하고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28회째를 맞는다.

전라병영성 축제는 ‘과거를 PLAY, 현재를 ENJOY’라는 주제로 8개 분야 37개

의 프로그램으로 준비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5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전라병영성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으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관광객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들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대표적으로는 넷플릭스 흥행작인 ‘오징어게임’을 병영성 테마에 맞춰 비석치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등으로 재구성한 ‘병영성 게임’, 서바이벌 스포츠로 야외 총싸움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바이벌 사격 체험’, 미니말·유산양·거북이·토끼·공비단 뱀·앵무새·미니돼지·기니피그 등 총 12종의 다양한 동물들을 만지고 먹이를 줄 수 있는 ‘병영성 동물농장’ 등이 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인 솜사탕을 활용한 솜사탕 퍼포먼스 공연과 자전거 솜사탕 만들기, 병영 성곽 쌓기 체험, 장작패기 체험, 에어바운스 도전 챌린지 등도 마련됐다.

오는 19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5시30분, 20일 오후 1시와 5시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캐지! 티니핑과 핑크퐁’과 ‘튼튼쌔의 댄스파티’도 준비돼 있다.

더불어 스타임슬림 의복체험 △전통놀이 체험 △무기 전시 및 체험 등 조선시대를 테마로 한 다양한 이색 프로그램들을 통해 관광객들은 현재에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축제는 19일 병마절도사 마천목 장군의 입성식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오후 3시부터 개막식 행사가 시작된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하는 개막 축하 공연에는 ‘효도합시다’, ‘독백’, ‘보릿고개’ 등으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출연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조선시대를 테마로 한 오감만족 체험 프로그램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했다”며 “전국 제일의 호국 역사 체험 성지인 전라병영성에서 조선시대의 자취를 느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